

국내 고집중 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충주대, 30kW CPV 실증설비 구축 ... CX솔라코리아 · 우신솔라텍 참여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태양광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충주대학교에 고집중 태양광 태양전지 실증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충주대학교는 CX솔라코리아, 우신솔라텍, 서부발전, 충주대 태양광기술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고집중 태양광 태양전지 실증단지를 학교 내부에 조성한다고 4월20일 밝혔다.

충주대는 5억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1500㎡부지에 30kW 규모의 고집중 태양광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집중 태양광 태양전지(CPV: Concentrated Photovoltaics)는 40% 이상의 효율을 가진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와 광학적 집광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기존 실리콘계 태양전지에 비해 효율이 25%가량 높고 설치면적의 감소 및 온도안정성 특징을 가진 3세대 태양전지 기술이다.

충주대 관계자는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태양광기술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다양한 교육 및 견학 장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발전전력은 기숙사 등 교내 건물의 전력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1>